

## 동구 지역의 투자 환경 변화와 진출 전략

이준호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양두용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80년대 말 구소련의 붕괴 이후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동구의 舊사회주의 국가들은 최근 체제 전환에 따른 과도기의 어려움을 진정시키면서 본격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94년 이후 대부분의 동구 국가들은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났으며 향후 경제 성장의 발판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 역시 증가 추세에 있어 이러한 동구 경제권의 성장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동구 경제권의 부상과 더불어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의 對동구권 교역 및 투자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동구 지역의 투자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동구 지역의 투자에 있어 특히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사회주의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한 이들 국가들이 국영 기업의 민영화와 금융제도의 선진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의 민영화 정책과 금융제도의 이해없이 투자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피상적인 접근일 것이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동구 지역 특히, 폴란드, 헝가리, 체코의 금융제도와 민영화의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 기업의 진출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동구 지역에서의 폴란드, 헝가리, 체코의 역할

동구는 서구와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문화와 역사의 공통성을 유지해왔으며, 경제적인 면에서도 최근 EU 및 OECD의 가입 등 서구 유럽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들 국가들 특히, 폴란드, 체코 그리고 헝가리 등은 대외적으로 1991년 12월 16일 EC와 준회원국협정(Association Agreement)을 체결하였으며 1992년 4월에 EU의 준회원 자격을 획득하였다. 대내적으로는 1993년 3월부터는 3국 간 자유무역협정을 발효시킴으로써 인구 6,500만의 통합 시장을 탄생시켜 경제 개혁에도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동구 제국은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체제 전환과 시장 경제의 도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범유럽 경제권과의 통합을 목표로 세계 경제의 적극적인 편입을 지향하고 있다.

동구 제국들 가운데 폴란드, 체코, 헝가리 3국이 국내 기업의 동구 지역 진출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미국과 유럽 등의 서구 제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위의 3 국을 NATO에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위의 3 국을 체제 전환국의 성공 모델화하기 위하여 정치 전략적으로 3 국에 대한 투자 및 경제적인 원조를 아끼지 않고 있다.

둘째, 동구 3 국은 러시아 및 국가독립연합(CIS)과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어, 러시아와 국가독립연합(CIS)으로의 시장 진출에 있어 교두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에 이 지역에 대한 해외 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셋째, 2002년경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들 동구 3 국이 EU에 완전 편입된다면, 유럽 시장의 진출에 있어서도 자유로운 자금 이동 또는 무관세 수출 등과 같은 많은 이점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위에 열거한 3 국은 동구 지역뿐 아니라 향후 러시아 및 국가독립연합(CIS) 진출과 나아가서 서구 유럽 지역의 확대 진출에 있어 중요한 거점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동구 3 국의 금융제도**

우리가 해외에 투자를 고려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그 나라의 금융제도일 것이다. 이는 투자의 수익성과 투자 이익의 회수 등과 연관되어 해외 투자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더욱이 투자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안정적인 자금 이동은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체제 전환국인 동구 지역의 투자에 있어 이들 국가의 금융 산업 현황과 발전 방향은 단순히 금융 산업 자체의 투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투자에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들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현지 우량 고객을 사전적으로 발굴 관리한다는 관점에서조차 조속한 진출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국내 은행의 관심이 대체로 주요 국제 금융 시장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금융 업무 영역 및 지역의 다변화 차원에서도 이 지역으로의 조기 진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1) 동구 3 국 금융 개혁의 개요**

개혁 이전 동구의 금융은 재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중앙은행이 상업은행 업무를 병행하는 일원은행제도(mono-banking system)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공산 정권의 붕괴 이후 서구의 금융제도를 모델로 금융 개혁을 실시하여, 최근에는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의 기능이 분리된 이원은행제도(two-tier banking system)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최근 동구 지역 금융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 개혁 실시 이후 계획 경제 하에서 양산된 부실 채권이 다량 남아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동구

지역 금융 기관의 민영화에 있어서 헝가리와 폴란드의 경우에는 외국 은행의 참가를 위하여 약 25%는 외국 은행에, 25~30%는 정부가, 나머지는 주식 시장을 통하여 일반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이 지역의 금융 기관은 대체로 서구식 경영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체코는 국민에게 국영 기업 및 은행의 지분을 염가로 매각하여 소유권은 민간에게 이전되었으나, 경영 면에서의 완전한 민영화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구 개혁 이후 외국 금융 기관들은 지점, 자회사, 합작 투자, 자본 참여, 사무소 등의 형태로 진출하고 있으며, 아직 동구 지역은 리스크가 높고 시장이 좁기 때문에 대형 은행의 적극적인 진출은 미비한 실정이다.

〈표 1〉 외국 금융 기관의 시장 점유율(1994)

	폴란드	체코	헝가리
	3.1	10.0	14.4

(%)

증권 시장은 1990년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에 제일 먼저 증권거래소를 개설하였으나, 바르샤바거래소가 가장 활발하며 체코에서는 민간 기업도 상장되는 등 동구권 증권 시장 성장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외환 개혁도 상당히 자유화되었으나 외화의 유입은 쉬우며 유출은 다소 제한되어 있다. 동구 국가들은 경제·사회 면에서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은행제도 면에서도 독일의 기업주의 은행제도를 채택하여 동구의 우량 은행은 향후 기업에 대한 강한 지배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2) 동구 지역 금융 산업의 현황

동구 지역의 경제 개혁이 시작된 1990년 이후부터 은행이 수적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과거 일원은행 제도 하의 중앙은행계 상업은행은 기업 금융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금원은 기업예금, 중앙은행 및 타은행으로부터의 차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국무역은행은 외국 송금, 외화 대출 등 외국환 업무를 전담한다. 조달원은 기업 및 개인의 예금과 중앙은행과 타은행으로부터의 차입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저축은행은 개인 예금을 유치하여 주택 자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은행간 시장에서 운용하며 최근에는 주식, 투자 펀드의 판매, 소비자 금융도 취급하고 있어, 동구 지역의 금융은 매우 빠른 속도로 서구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외국무역은행은 단기의 무역 자금을 취급하여 자산 상태가 건전한 편이나 과거 중앙은행계의 상업은행은 부실 채권의 보유액이 과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저축은행은 지점이 많고 서구식 금융 서비스 마인드 등이 정착되지 않아 경영의 효율성과 수익성이 낮으나, 동구 지역의 금융 산업이 발전하면 점포가 많은 이들 은행의 경쟁력이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체코와 폴란드 은행은 경영이 비교적 건전하며 특히, 프라하 소재의 은행은 동구의 최우량 은행으로 인식되고 있다

업무 영역 면에서도 서구의 은행들과 큰 차이가 없으나 도매 및 기업 금융보다는 소매 금융에 치중하는 실정인데, 이는 도매 금융을 취급하기 위한 기법이 서구의 은행에 비해 부족하여 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동구의 도매 금융은 국영 기업 및 무역 관련 대출 업무에 치중되어 있다.

### 3) 동구 지역 금융 산업의 문제점

동구 지역의 금융은 오랜 중앙은행의 지배로 금융 서비스 및 자금 포트폴리오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여 은행의 기능과 경영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 따라서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재인식과 금융 하부 구조(banking infrastructure)를 개선하는 것이 당면 과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은행이 재원을 정책 금융이나 국채 매입에 과다 사용하고 금융 자산의 축적이 부진하여 단기 대출을 선호하여 기업 금융이 충분히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나, 최근 가계의 저축률이 10% 수준으로 높아지고 향후 설비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기업 금융 부문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동구의 금융 개혁 상태나 외국인 투자 상황 등을 고려해볼 때 2000년경에는 동구의 금융 기관이 서구의 금융 기관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어 오히려 국내 금융 기관보다 경쟁력의 향상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렇게 금융 부문이 예상외로 급속히 발전하는 것은 동구 3국(폴란드, 헝가리, 체코)이 우리나라보다 OECD에 먼저 가입하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 동구 3국의 민영화

동구 지역의 민영화 추세는 1990년 초기부터 자유 선거에 의한 정부의 출현과 함께 경제 개혁이 단행되면서 시작되었다. 동구 지역의 개혁은 크게 가격 결정의 자유화, 기업 경쟁의 도입, 유통제도 정비 등 시장 가격의 기능을 확대시키는 조치와 행정 조직, 재정 개혁 등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조치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민영화 과정의 기술적, 정치적인 문제점이 산재하여 개혁의 속도가 예상보다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1) 동구 지역의 민영화 현황

동구 지역의 민영화는 국가 기업에 의한 생산 비중이 높아 국가 부문의 비중이 10~15% 정도인 서구 시장 경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이다. 폴란드의 경우, 정치적 불안 등으로 인한 국내 의견 수렴 지연, 해외 투자가의 참여 저조 등으로 헝가리에 비교해 더딘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대규모 사업의 민영화가 상대적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체코 역시 주식회사로 전환된 기업의 주식을 대중에게 거의 무상 이전하는 방식(쿠폰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자주성을 강조하여 매각 원칙을 고수한 헝가리의 경우보다 대체로 자유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더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민영화의 방식으로는 기업 자산의 일부만을 매각 또는 임대에 의해 민간에게 이전하는 방법과 전체를 매각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또한 민간 소유권이 분할 가능한 경우에는 국유 기업을 주식회사로 전환한 후 정부가 주식을 보유하고 정부가 선정한 이사회가 기업 활동을 감시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를 취하더라도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민 재산을 외국인에게 매각한다든지 국내 전략 산업을 외국인이 통제하는데 대한 반감 등으로 국민적 정서가 많은 부문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가 국유 기업을 매입할 경우, 자본 유입, 생산 기술 및 경영 방식의 선진화 등의 장점을 기대할 수 있어, 정부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외 자본의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 동구 3 국의 주요 민영화 기업(1996년 예정)

폴란드	체코	헝가리
KGMH(광산업)	Komerčni Bank(은행)	MOL(석유가스)
LOT(폴란드 국영항공회사)	Czeska Sportelna Bank(은행)	OTP(은행)
Ruch Chain of Newsagents(공공 교통)	CEZ(에너지)	Richter Gedeon and Egis(제약회사)
TeleKomunikacja Polska(폴란드 전신전화)	SPT(전신·전화)	PICK(식품)
		BorsodChem(화학공장)

### 2) 동구 지역 민영화의 문제점

90년대 초반 이후 동구 지역의 민영화는 기득권 집단의 불만, 부실 기업의 정리, 행정력 및 투명성의 결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나 대체로 꾸준히 진행되어왔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소규모 기업과 서비스 기업의 민영화는 대체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기업의 민영화는 막대한 자금과 재정적·정책적 통제가 요구되어 상대적으로 그 진전이 매우 지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광공업 부문의 대규모 국유 기업 가운데 대다수가 민영화 추진에 어려움을

려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의 재정적·조직적인 구조 개편을 서두르고 있으며, 전력, 석유, 가스, 통신 등 기술적인 독점이 불가피한 부문과 무기 생산, 정유, 광산업, 조선 등 기간 산업 혹은 전략적인 산업 부문도 민영화하기 어려운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동구 지역 대다수 기업들의 문제점은 민영화된 기업들의 자기 자본 규모가 대체로 영세하여 자금난에 처해 있는 기업이 많으며,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개념의 부재로 만성적인 적자 기업이 많다는 사실이다. 파산법이 철저히 적용되지 않는 폴란드와 체코 등에서는 대규모의 기업 도산 현상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헝가리에서는 1992년부터 그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향후 신용에 의해 기업 자금을 조달한 내부 매각 방식과 쿠폰 방식에 의해 민영화된 기업의 경우 도산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동구 진출 전략

### 1) 동구 지역 민영화 부문의 진출 전략

위에 열거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동구 지역에서의 투자는 거대한 시장 수요 잠재력과 서구 및 러시아 지역으로의 진출을 위한 거점 확보 차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동구 지역의 투자 방식은 대체로 100% 외국인 투자에 의한 생산 설비 신축, 조인트 벤처, 그리고 민영화 대상 기업의 인수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특히 민영화 대상 기업의 인수 방식은 정보의 제약, 복잡한 절차 및 각국의 고유한 관행 등으로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동구 지역에서는 독일 등 유럽 선진국의 투자가 과다하여 이들 소수의 국가에 의해 자국 경제가 잠식당하는 것을 우려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투자를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국 정부가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어, 어떠한 경우에는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대우자동차의 경우 1995년 폴란드 상용차공장(DMP)과 승용차공장(FSO)을 인수하였으며, 체코의 3대 트럭 생산 업체 가운데 하나인 아비아(AVIA)를 인수하는 등 동구 지역 최대의 자동차 생산 업체로 도약하고 있다. 특히, 폴란드 정부가 폴란드 내에서 대우의 자동차가 생산될 때까지 대우의 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는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한 것은 고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동구 3국의 산업별 특성을 살펴보면, 폴란드의 경우 동구 3국 가운데 잠재적인 내수의 규모가 크고 국가 기간 산업에 대한 민영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향후 폴란드에의 대규모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중화학 공업 등 대규모 기간 산업은 물론 유통 및 물류 부문에의 진출도 고려해볼 수 있다. 체코의 경우에는 시장 규모가 작다는 단점이 있으나, 전통적으로 산업 기술 수준이 매우 높고 시장경제체제가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어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의 진출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헝가리의 경우에는 금융 부문이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으므로 금융 부문의 민영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각국의 민영화 방식과 절차가 상이하고 여러 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국가는 물론 그 지방의 특수적인 경제 사정, 관행 등을 철저히 파악하는 것이 성공적인 민영화 기업의 인수를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동구 지역 금융 산업의 진출 전략

동구의 경우, 사유화 과정 및 부실 은행의 증자 및 합병 과정에서 외국 은행의 자본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어 국내 금융 기관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동구 지역 금융 산업의 진출은 크게 자본 참여 혹은 합작 투자 방법과 M&A에 의한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자본 참여나 합작의 경우 경영권의 선택 경영 의사 결정 등 여러 가지 마찰이 빚어질 수 있으나, 국가별로 상이한 관행과 법적인 부문에 대한 문제점 등이 발생할 경우 합작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동구 지역 정보에 대체로 정통한 경영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자본 부족을 겪고 있는 은행이나 정책 금융으로 부실화된 은행을 인수하여 적극적으로 금융업에 진출해볼 수 있다. 특히, 중앙 3 국이 향후 EU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제조업과 금융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도 대기업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종합적으로 진출하는 가능성도 타진해볼 수 있다

## 맺음말

우리나라가 동구 지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80년대 후반 북방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동구 지역에서는 축적된 자원과 선진 기업 경영 기법의 부재로 외국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민영화의 참여폭도 대폭적으로 확대시키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유럽 진출의 생산 거점으로 크게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동구 지역의 경기 부진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장기화되는 체제 전환 기간 그리고 최근의 동남아 투자 열기로 동구 지역에 대한 관심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동구는 매우 큰 판매 시장임이 틀림없으며, 러시아와 서부 유럽 지

역의 진출 거점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현재에도 동구의 투자 메리트는 상대적인 저임금, 적극적인 외자 유치 정책, 잠재적인 기술 및 우수한 노동력 등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고 또한 문화적인 동질성이 적어 경영 상의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어 현재 동남아 지역보다 투자 가치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동남아 지역은 오히려 외국인 투자 정책이나 금융 상황이 동구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은 동구 지역의 내수 시장을 공략하고 장기적으로 전 유럽 및 러시아 지역으로의 수출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동구 지역의 투자 전략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 참고 문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경제」, 지역경제센터, 1996. 7.
- 윤건수, 「동구 주요국의 민영화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12.
- 정갑영, 「동구 개혁의 진전과 경제 협력 확대 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12.
- 한국산업은행, 「동구의 경제·금융 환경 변화와 국내 금융 기관의 진출 방안」, 한국산업은행조사부, 1995. 11.
- Krystina Kryzyzak. "For Diversity and Opportunity Look to the Markets of Central and Eastern Europe," *Euromoney*, 1996. April 30.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zech Republic, Poland, Hungary," *Country Profile*, 1995.